문학석사 학위논문

영국영어RP와 호주영어 발음의 비교

2012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김 명 희

영국영어RP와 호주영어 발음의 비교

지도교수 배 재 덕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김 명 희

김명희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2월

주　　심　언어학박사　김 은일　(인)

위　　원　영어학박사　박 순혁　(인)

위　　원　영어학박사　배 재덕　(인)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British RP English and Australian English Sounds

Meong Hui Kim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English takes an exclusive position as an officially language in this globalized world, and is the first communicating method in every quarter, Currently, English is spoken in about 73 countries worldwide and each of them is used in different forms, since its development in different countries was affected by local, cultural, and linguistic character. However in Korean case, all most every kinds of English study are under the influence of English RP .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promote general understanding of it through comparing Australian English sounds, especially vowels of which is a kind of variant of English RP sounds but not familiar with us,. That is concerned with the historical origin. The historical background which Australia was a colony of Great Britain tells us an interesting truth that Australian English was most significantly affected by British English. As American culture flew into Australian with various ways in 20 century, it also gave great influence on

language life, but still Australian English has a lot in common with British English which is a matrix of it. Geographical isolation of Australian continent and contact with various dialects spoken by settlers became primary reasons for Australian English to be developed in its unique form different from British English. And the unique characters are found in structure, pronunciation and lexis. Expecially vowel characters, such as several diminutive or opened mouth than RP are suggested that we should recognize and accept Australian English as one of the variants of standard English This has been due in part to changes that have occurred in Australia but has resulted still more from the fact that the pronunciation of England has undergone further change and that a variety of Australia English has come to be recognized as English received standard. At the present time Australia pronunciation shows certain well-marked differences from British us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목 차

ABSTRACT ····· i

I. 서론 . ····· 1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
1.2 선행연구 ····· 4
1.3 논문의 구성 ····· 5

II. 호주영어의 성립 배경 ····· 6
2.1 호주영어의 성립 ····· 6
2.2 호주영어의 발달과정 . ····· 8

III. 영국영어RP와 호주영어 발음의 비교 ····· 13
3.1 호주영어의 일반적인 특징 ····· 13
3.2 영국영어 RP발음 ····· 15
3.3 Jones의 기본모음(Cardinal Vowel System)과 영국영어RP모음의 비교 ····· 16
3.4 기본모음, 영국영어RP모음과 호주영어모음의 비교 ····· 23
3.5 영국영어RP자음과 호주영어 자음의 발음 비교 ····· 30
3.6 영국영어RP와 호주영어의 강세와 억양 비교 ····· 32

IV. 결론 ····· 35

참고문헌 ····· 36

〈 도표 목차 〉

〈 표 1 〉 D. Jones의 기본모음도 ····· 18

〈 표 2 〉 기본모음의 혀의 위치도 ····· 19

〈 표 3 〉 영국영어RP 자음도와 모음 ····· 20

〈 표 4 〉 Jones의 영국영어RP 모음분류 ····· 21

〈 표 5 〉 기본모음과 영국영어RP 모음의 비교 ····· 22

〈 표 6 〉 호주영어 단모음과 Cardinal Vowel의 비교도 ····· 23

〈 표 7 〉 영국영어RP 단모음과 호주영어 단모음의 혀의 위치도 ····· 25

〈 표 8 〉 fleece, face, price의 이중모음 비교 (영국영어RP → 호주 영어) 28

〈 표 9 〉 goose, goat, mouth의 이중모음 비교 (영국영어RP → 호주 영어)29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Ⅰ. 서 론

1.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국제화 시대가 이 지구상에서 도래하면서 영어가 세계어로 등장해서 금세기 이후에 영어가 세계의 통용어로 자리매김을 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고 거기에 따라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쓰는 국가의 국민들은 영어권 국가로 어학연수 및 유학을 가는 영어학습자가 날로 늘어가는 추세이다. 영어는 영국등과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와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 등과같이 점차적으로 세계의 모든 국가는 영어를 공용어화 하는 추세가 점점 늘어서 이와 같은 공용어로 쓰는 사용자와 모국어로서 사용하는 인구의 수는 약 10억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날의 영어는 크게 영국영어와 미국영어로 대변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이러한 영어에 익숙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또 하나의 모국어로서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호주인데, 우리나라와 같은 이러한 현실에서는 빈번하게 호주영어권에서 제2 전공이나 복수전공 학생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가는 추세로, 최근에는 영어학습자들이 호주영어에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인 영어에 어느 정도 능숙해 있더라도 호주영어에 대한 예비지식이 없는 영어사용자들에게는 호주영어로서 특이한 점, 특히 문법, 발음, 어휘 등에 있어서 낯설어 하고 당황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호주영어에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또 하나의 큰 영어권 중 하나인 호주영어를 접해본 기회가 없는 학습자들이나, 혹은 영어에 어느 정도 능숙하더라도 호주영어에 대한 예비 지식이 없는 영어사용자들에게는 호주영어의 독특한 문법, 발음, 어휘 등이 굉장히 낯설고 당황스럽게 느껴지며 심지어 호주영어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기도 한다.

몇 년 전 연세대학교의 Michael Gibb 교수가 영어 학당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다양한 전공의 수강생 58명을 대상으로 호주영어에 대한 한국인들의 편견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58명의 학생 가운데 2명만이 호주영어를 선호했으며, 호주 인들에 대하여 다른 영어권 국가에 비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Gibb 교수는 지정학적인 요인과 한국에서 실시되는 제도화된 영어시험문제 때문에 한국인들은 호주 식 영어보다는 미국식 영어를 선호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박종원 2001). 한국의 영어 학습자가 비 표준화된 영어 형태에 보수적이고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Park 2002). 이것은 영어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원어민 화자들만의 언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호주와 호주영어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호주영어는 지리적인 고립과 식민지라는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미국, 영국영어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호주영어의 이러한 특징들은 가끔씩 이해 불가능한 외래어라는 인상을 주면서 대화에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

호주는 6.25전쟁 당시 우리를 도와준 고마운 우방국임과 동시에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아시아권에 위치하고 있고 양국 간의 교류도 활발하여 2008년 한 해 동안 약 21만 8천여 명의 한국인들이 어학연수, 유학, 관광,

이민 등을 목적으로 호주로 출국했다. 이와 같은 양국 간의 점증하는 교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어문화에 대한 소개나 관심은 다른 영어권 국가에 비해 너무나 부족하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영어교육에서 호주영어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는 호주출신의 교사를 배치하여 호주의 영어발음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TOEIC등의 영어시험에서는 호주영어 발음을 포함한 다양한 영어권의 발음을 듣고 푸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이렇듯 미국, 영국영어와 더불어 중요한 하나의 영어권 축을 이루는 호주영어의 일반적인 특징 가운데서 발음의 특징을 영국영어와 비교해봄으로써 호주 영어를 긍정적인 자세로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논문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영어는 조어 인구어(Indo-European)에서 출발하여 게르만어(Germanic)에서 현대 고지 독일어와 저지 독일 어계가 분화되어 고기영어(Old English), 중기영어 (Middle English)의 영어발달시기를 거쳐서 현대영어 시기 (Modern English)에 이르렀다. 이 현대영어는 지역적인 환경과 언어적인 여건의 변화로 전 세계에 걸쳐서 각각의 방언이 발생하게 되었다. 영어의 방언을 크게 분류해보면 영국 표준방언에서 각각의 지역적인 방언으로 분화되어 미국영어, 캐나다영어, 호주영어, 아프리카흑인영어 등으로 대별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영어의 방언을 분류 할 때는 영국영어와 비교하여서 각방언의 특징을 기술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있다. 그래서 본 논문 에서는 영국표준영어를 중심으로 하여 호주영어와 비교되는 특징을 연구 하고자 한다. 영국영어에 비교되는 호주영어를 비교 할 때는 통사적인 면, 음성적인 면, 그리고 어휘적인 면 등을 비교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있어서는 영국영어의 RP(Received Pronunciation)발음을 기

준으로 하여 호주영어 발음과 비교하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비교되는 발음은 모음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많고 자음은 비교적 미미한 차이가 있으며 각 지역 방언마다 강세와 억양 면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1.2 선행연구

송경숙(2005)의 '호주영어 및 호주 원주민영어의 특징'에 관한 연구에서는 호주영어의 특징을 음 체계 및 발음, 문법, 어휘를 중심으로 논의하여 호주영어에 대한 이해와 교육적 차원에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경기 대학교 박종원(2001)은 자신의 논문 '현대 호주영어의 특징에 관한 연구'에서 호주영어의 특성을 영어 변천사적 및 사회언어학적 측면에서 음운체계와 철자, 형태 및 통사구조를 파악하였다. 또 다른 그의 논문 '현대 호주 속어 영어 양상과 형태학적 특징'에서는 호주인 들이 일상 언어생활에서 즐겨 사용하는 구어체 어휘와 속어 표현들을 그 활용양상과 생성배경을 파악하고 형태학적 특징 구조를 분석하였다. 박종원의 이와 같은 연구는 본 논문의 연구방향과 크게 부합하여 큰 도움이 되었다.

구희산(2002)의 '영국, 미국, 호주영어의 모음의 특징'과 김찬훈(1997), 김지향(2004)의 호주영어의 모음에 관한 석사논문, 그리고 박희문(2000,2001)의 '호주영어의 사회언어 적 기원과 특성', '호주영어의 음성분석연구' 에서는 호주 식 영어발음의 기원과 사회언어학적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영국영어와 구별되는 호주영어의 모음의 특성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

석하고 그 음운적 특성을 명확하게 구명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은 본 논문에서 참고할 가치가 분명히 크다고 하겠다.

호주영어와 관련하여 나와 있는 연구 자료는 대부분이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진행된 것이다. 특히 Johansen Lenie(1996)와 Sarah Dawson(1999) 는 호주인 들이 사용하는 독특한 어휘 및 속어표현에 관한 연구로 호주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호주영어의 다양한 특징에 대해 규명해 본다.

1.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인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 서론에서는 호주영어에 관한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선행연구와 본 논문의 구성에 대해서 소개한다. 제 2장에서는 호주영어의 성립과 발달과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호주영어의 일반적인 특징, 영국영어RP발음, 호주 영어의 모음, 기본모음, 영국영어RP모음과 호주영어 모음의 비교, 영국영어RP자음과 호주영어 자음의 발음비교, 영국영어RP와 호주영어의 강세(accent)와 억양(stress)비교 등을 분석 한다. 제 4장의 결론에서는 호주영어의 발음과 영국영어RP발음을 비교하여 정리했다.

II. 호주영어의 성립 배경

2.1 호주영어의 성립

18세기 후반, 영국의 끊임없는 탐사는 남쪽 대륙에 영어를 정착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호주대륙의 발견은 1770년 4월 29일 오늘의 Sydney항에서 약 20km 떨어진 남쪽해상에서 태평양 연안을 측량, 탐색하던 영국 해군소속 James Cook(1728~79) 선장에 의해 영국인들에게 처음 소개되었다. James Cook선장은 천문학자들과 Endeavour호를 타고 남태평양에 있는 Tahiti섬에서 금성을 관측한 후 서남쪽으로 항진하였다. 1769년 10월에 New Zealand를 발견하고 다시 서쪽으로 계속 항진, 마침내 보타니만(Botany Bay)에 처음 상륙하였다. James Cook 선장은 그가 새롭게 발견한 신대륙이 자신의 고향인 영국의 South Wales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곳을 New South Wales라고 칭했고, 훗날 Australia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Australia는 라틴어의 Terra Australia에 그 어원을 두고 있는데 이 뜻은 남쪽의 대륙이란 뜻이며 1817년 호주의 국호가 되었다. 당시 호주에는 약 4만 년 전 부터 동남아시아에서 이주해온 원주민(aborigine) 약 30여만 명이 있었는데 영국인들은 이들을 호주 내륙 오지로 추방시키고 대신 그곳에 새 식민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18세기 후반 당시 영국은 미국과의 독립전쟁이후 북미대륙에 식민지를 상실함에 따라 본국의 감옥에서 넘쳐나는 죄수들을 수용할 제 2의 유배지를 물색하던 중이었다. 1788년 1월 26일 초대총독 Arthur Phillip이 지휘하는 최초함대(The First Fleet)가 11척의 범선에 정부관료, 군인, 목사, 교사 그리고 각 지역 출신 죄수들로 구성된 1066명의 이주민들을 대동하고 본국의 남부

항구 도시 Portsmouth를 떠났다. 그 이후 8개월 동안에 오늘의 Sydney가 입지한 Jackson항구에 입하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영국 식민지 역사가 영국본토의 34배가 넘는 호주대륙에서 시작되었다. 첫 함대가 Sydney 항에 도착한 이후 1840년 죄수들의 송출이 종식될 때까지 60여 년간 대략 13만 명 달하는 죄수들이 연이어 이곳으로 추방되었다. McCrum, Cram 그리고 MacNeil에 의하면 19세기 중반까지 총 호주 인구의 87%가 죄수이거나 이들의 후손들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200여 년 전 호주대륙에 정착했던 대부분의 죄수들이 호주영어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사회계층 하류를 점했던 가난한 Irish출신의 영국인들과 London, Liverpool, Leeds 등의 지방 출신들이었다. 그 외에도 'free settlers'라고 불리는 자유 정착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그 수가 많지는 않았다. 그러나 19세기 전반에 걸쳐 자유이민자들이 계속적으로 호주로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1850년대 후반에는 영국인들의 이민 물결이 증가하면서 호주의 인구가 약 40만 명에 이르게 되고 1900년에는 거의 400만 명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자유정착민의 대부분은 영국의 동남부 시골지역 출신의 농장 경영주와 소작인들 그리고 영국 내의 사회적, 산업적 변화의 불안으로부터 도망친 도시 노동자들이었다. 양털, 광물과 같은 호주의 경제적 발전으로 자발적인 이민자의 수가 더욱 더 증가하게 되었고 1851년과 1861년 두 차례에 걸친 금광의 발견은 세계 각국의 해외 이민자들을 한꺼번에 몰려오게 만들었다. 이러한 계속적인 인구의 증가로 현재 2009년 집계에 따르면 호주의 인구는 약 2천 175 만 8천명을 육박한다.

영국에서 호주로 이주해간 정착민들은 언어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많은 죄수들이 London과 Ireland에서 건너갔기 때문에 London의 Cockney 악센트의 특징과 Irish 영어의 지방 사투리는 오늘날까지도 호주에서 들을 수 있는 흔적들이다. 또한 호주대륙에서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토착어와 여

러 나라에서 이주해 오는 다양한 사람들의 언어에 의해 호주는 아주 복합적인 언어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2.2 호주영어의 발달과정

호주인 들이 사용하는 특유의 구어체 어휘와 속어 때문에 미국영어와 영국영어만큼 호주영어에 노출되지 않은 우리로서는 호주영어가 낯설고 어렵다는 견해와 함께 불편한 언어라는 편견을 갖게 된다. 호주영어는 호주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토착어, 오랜 영국식민지화로 인해 생활화 된 영국영어,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하여 대량으로 유입된 비영어권화자들의 여러 언어들이 동화 수정되는 과정을 통해 발달되어 왔다. 따라서 호주영어를 접해볼 기회가 많지 않은 학습자들에게는 이러한 불편함이 어쩌면 당연하게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호주영어의 독특한 어휘 및 속어의 생성과 그 발달과정은 언어접촉(language contact)과 방언접촉(dialect contact)이라는 두 가지의 측면에서 설명된다(정상균, 1998).

호주영어에 있어서의 언어접촉이라 함은 호주원주민들의 토착어와 비영어권 이주민들이 사용하던 모국어의 결합이라 할 수 있다. 18세기말 영국이 호주를 침략하기 전에 호주에는 약 250개의 원주민 토착어와 약 600개의 방언이 사용되었다고 Eades(1955)는 설명했다. 그러나 영국의 유배지가 되면서 많은 죄수들 및 이민자들이 호주로 유입되었고 그 결과 4만년 전부터 호주에 터를 잡고 생활해온 원주민(aborigine)들은 살던 곳에서 쫓겨나 언어적으로도 파괴되어 현재 잔존하는 원주민언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예전 대영제국의 다른 식민지와는 상당히 다른 면

을 보이고 있는데 아프리카와 인도의 토착어는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고 그 사용자는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Dixon(1977)은 호주 원주민 언어가 지난 몇 세기 동안 사라지게 된 배경을 크게 두 가지의 주된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인구감소(population loss)에 따른 언어소멸이다. 이것은 살인이나 질병에 의한 인구 감소로 침략자들에 의해 자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화롭게 살던 원주민 마을에 갑자기 이주해 온 유럽인들은 이들의 땅을 빼앗고 원주민을 학살하고 내쫓는 만행을 저질렀다. 호주의 원주민 부족들은 백인 이주자들에 의한 대학살로 죽임을 당했고 이런 가혹한 학살이 호주 전역에 걸쳐 자행되었는데 이것은 후세에 언어가 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자들을 제거한 것이다. 무기를 가지 백인들은 원주민을 마치 동물과 같은 사냥감으로 삼았고 심한 경우 광견병에 걸린 개에게 주는 독약을 먹이기로 했다. 대학살 이외에 또 다른 인구감소의 원인은 바로 질병이다. 유럽인들은 홍역, 천연두, 감기, 성병과 같은 질병들을 가져와 호주대륙에 퍼뜨렸고 토착원주민들은 이러한 질병들에 저항력이 없었다.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영국의 첫 번째 정착지 부근에서 원주민의 거의 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천연두로 죽었는데 이는 유럽인들이 도착한지 불과 2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백인 침략자들이 특정한 장소로 이동하게 되면 이들이 가지고 온 질병에 의해 대혼란이 발생했고 인구수도 급격히 감소했다. 이러한 전염병은 호주의 전 대륙을 통해 퍼져나갔고 더 많은 전염병을 낳기에 이르렀다.

원주민 언어소멸의 두 번째 원인은 강제적인 언어감소(forced language loss)이다. 때때로 언어는 한 우세한 그룹이 어떤 특정언어가 사용되는 것을 금하기 때문에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 Andrew Dalby(2003)에 따르면 백인 이주자들은 질병이나 학살이후에 살아남은 소수의 토착민들 특히 어

린여성들이나 아이들을 노예로 만들었다고 했다. 또한 원주민 어린이들을 강제로 부모와 떨어뜨려 백인 가정에 보내 키우게 했고 그들이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어떠한 기회도 허용되지 않았고 이러한 수법들은 언어말살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원주민 언어소멸로 호주영어에 끼친 토착어의 영향은 극히 적어서 주로 지명, 동물명, 식물명 같은 어휘에 국한되어 있다. 어휘들을 제외하고는 토착어가 현대 호주영어의 문법이나 음성체계와 같은 요소들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지만 토착어 화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언어의 다양성은 분명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가끔 토착영어(Aboriginal English)라고 불리는 비표준적인 다양성과 더불어 영어와 토착어간의 접촉에 의해 생겨난 몇 가지 혼성어(creole)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언어 접촉으로 인한 호주영어의 발달의 또 다른 근원은 바로 이민자들의 언어이다. First Fleet이 Botany만에 닻을 내린 이후 150년 동안 호주의 비 토착 인구는 압도적으로 영어 사용자였다. 첫 반세기 동안 유형지로서, 호주영어 창립 인구의 대부분은 추방된 영국범죄자들과 그들의 교도관들이었다. 영어이외에 초창기 호주에서 사용된 언어중 하나는 Irish 이었는데 당시 호주로 이송된 죄수들의 1/4 이 아일랜드인 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언어적 영향력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경감되었다. 그 중 첫 번째 요인은 대부분의 아일랜드 인들은 영어를 사용할 줄 알았고 혹은 적어도 제 2언어로서 영어가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아일랜드 죄수 등이 반항할 경향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들을 분산시키고 억압시키는 정책을 펴 아일랜드 화자들이 언어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막았다는 점이다.

몇몇의 학자들은 아일랜드 영어의 유입으로 현대 호주영어의 어떤 특징들을 조사하려는 시도를 하지만 그로부터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적었다. 따라서 언어 접촉은 호주영어의 발전에서 중요한 요인은 아니었고 토착어에서 빌려온 어휘들과 소수 아일랜드어의 영향력을 제외하고는 호주영어의 사회언어적 역사는 방언접촉에서 그 유래를 찾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호주영어어휘의 두 번째 발달배경인 방언접촉의 관점에서 살펴보겠다. 언어접촉이 호주영어의 독특한 특징에 오직 소수의 공헌만을 했다면 초기 인구의 방언접촉이 제 1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 후반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죄수들이 호주대륙에 유배되어 정착하게 되고 이러한 언어들이 혼합되면서 호주영어가 시작되었다. 승객의 대부분인 도시 출신의 죄수들은 8개월간의 긴 항해 기간과 정착촌 생활 동안에 각자의 출신지역 방언으로 활발한 소통을 했고 이 첫 번째 정착민들은 호주라는 새로운 땅에서 언어발달은 영어의 변화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했다. 하지만 실제로 1788년 2월 26일 Sydney Cove에 영국의 깃발이 휘날리기도 전에 이미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활발했다. 강제적으로 호주대륙으로 이송되어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농촌을 떠나 도시에 거주하면서 도시의 언어에 순응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이 또 다시 8개월 이상 지속된 선상생활에서 죄수들 사이에 섞이게 되면서 다양한 언어적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들은 호주라는 새로운 정착지에서 작은 공동사회를 만들었지만 전반적인 언어의 형성에 기여한 개개인의 영향력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Trudgill(1986)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It was a situation of 'dialects in contact', the bringing together of differing forms of English leading to a mutual adjustment or

accommodation of speakers in particular encounter with consequent mixing, leveling and simplification of language

즉, 방언접촉은 영어의 다른 형태들이 상호이해와 혼합, 수평화 간소화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호주의 초기이민자들은 다양한 변종의 영어를 사용했었고 그 후 호주에서 출생한 첫 백인 세대들은 다양한 방언들이 혼합하여 하나의 독자적인 언어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역사의 관점으로 호주 영어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세 가지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첫째, 호주영어의 출현은 어떤 특정한 영어방언의 대응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영국 방언에 투사되는 특징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은 또 다른 완전한 독창적인 발전이었다.

둘째, 사회적인 다양성은 처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방언의 독창적인 양상이었다. 초기 호주의 모든 사회적 규정과 마찬가지로 언어 역시 속박과 자유라는 죄수와 교도관 사이의 깊은 경계는 벗어날 수 없었다.

셋째, 언어 변화는 초기 호주영어의 현저한 특징임이 분명하다. 방언접촉과 사회언어학적 다양성은 언어적 진화를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고 적어도 처음 2 세대 또는 3 세대동안 영어를 사용하는 호주인 들은 확실히 이 두 가지를 충분히 경험했다.

III. 영국영어 RP와 호주영어 발음의 비교

3.1 호주영어의 일반적인 특징

호주영어는 식민지 초창기에 호주로 이주해온 다수의 런던 노동자 계층들로 인해 Cockney와 상당히 비슷하게 들리지만 말이 더 느리다는 점, 약한 입술동작으로 인해 음이 불분명 하다는 점 등이 Cockney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호주는 영국대륙의 약 34배나 되는 크기이지만 그 광범위한 면적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방언의 차이점은 거의 없는 편인데 이러한 언어의 균일성이 생겨난 원인이 '평등사상'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호주 인들은 스스로 '평등사상'을 항상 추구한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언어에서도 신분적, 계급적, 교육적 차이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호주영어의 단일성은 이러한 이념이 아닌 정착의 역사에서 출발한다. Sydney항에 상륙한 영국인들의 첫 함대가 일정기간 동안 정착한 이후 그 이주민들이 가까운 해안 도시로 점차 거주지를 넓히면서 이동하여 한 지역에만 고립된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방언이 심하지 않았고 통일된 영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라는 의견이 대체 적이다. Connell과 Irving(1980)에 의하면 당시의 노동계층들은 일자리를 찾아 자주 이동을 하였기 때문에 생활패턴이 상당히 유동적이었고 특히 19세기 전반에 걸친 내부적 이동이 일련의 골드러시에 의해 촉발되어 그 기간 동안 Victoria나 Western Australia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갔기 때문에 호주방언들이 전국적으로 산재하게 되었다고 지적했으며(박희문,2000), 또한 호주의 식민지화는 중앙 집중적인 정부 운영체제였고 영어사용국으로 부터의

고립은 내적인 의사소통을 조장하여 지역주의를 최소한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언어학자인 Michell & Delbridge(1965)가 지적했듯이 호주영어에는 지역적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사회적 다양성은 존재한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지라도 개개인의 교육수준, 직업,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사회 계층별로 특이한 호주 모음을 구사하는데 세 가지 유형별로 살펴보면,

(1) 전형적인 호주 사투리 (Broad Australian)

나이가 많고 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자 계층, 일부 남성들, 무학자, 하층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호주 전체 인구의 약 34%가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사용하는 영어는 London의 Cockney영어와 비슷하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 이는 식민지 초창기에 호주로 이주해온 다수의 죄수들과 노동자 계층의 영향 때문이다. 호주 사투리의 특징은 모음을 길고 느리게 발음하여 과도한 비음을 낸다는 점이다. 또한 어휘와 음절들을 얼버무려 발음하거나, 발음을 아예 하지 않은 채 넘겨버리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특성들이 Cockney발음은 좀 더 말이 빠르고 억양이 음악적(rhyming song)이라고 할 수 있다.

(2) 일반 호주영어 (General Australian English)

전체 호주 인구의 과반 수 가 넘는 55%가 사용하기 때문에 표준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영국 남부의 방언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Ireland와 Scotland의 영어 음과 더 유사하다. 이 호주어의 특징은 모음의 발음이 필요이상으로 길지 않으며 발음도 중도화 되어있기 때문에 많은 호주인 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적 실체성을 지닌 대표방언이라고 할 수 있다.

(3) 교양인 호주어 (Cultivated Australian English)

호주인 들이 인정하는 가장 품위 있고 세련된 표준영어이다. 호주인들 가운데서도 교육받은 여성들이나 특수 사립학교, 귀족출신 등 주로 상류사회에 통용되던 방언으로써 현재 11%만이 사용하고 있는데 18세기 식민지 당시부터 영국 관리들이나 교회목회자들이 사용했다. 호주 방송 위원회(Australian Broadcasting Commission)의 아나운서들이 즐겨 사용하는 영어이며 음절이 분명히 구분되고 비음을 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3.2 영국영어RP 발음

영국의 런던을 중심으로 한 동남부지방에서 귀족계층과 공립학교에서 주로 사용되는 중상층계급의 영국인들이 사용하는 발음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 발음은 London 대학의 Daniel Jones 교수가 영국영어RP발음을 중심으로 An English Pronouncing Dictionary(1924)를 사전으로 출간하여 이 책을 전 세계에 보급함으로써 이 사전의 발음이 실제적으로는 영국의 표준발음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은 미국이나 호주보다도 영토가 좁지만 영국과 호주에 비해서 지방에 따르는 방언차이가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발음을 비교할 때는 Jones의 발음사전을 기준으로 해서 각 지역간의 방언을 비교하고 그 차이를 알아볼 수 있다. 현재 BBC방송에서 방송하는 아나운서들의 발음은 영국영어 RP(Received Pronunciation, 용인발음)발음을 근간으로 하여 방송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지역이 좁으면서도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

리, 강원도 사투리 등 사투리가 다양한 것과 같이, 영국 본토에 있어서도 사투리가 우리나라 못지않게 발음의 편차가 심하고 방언간의 차이가 어떤 지역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런 다양한 우리나라 방언의 편차는 KBS1 방송이 한국 전 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공급됨으로서 우리나라 방언의 편차는 점점 KBS에 준하여 발음의 정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도 BBC방송에서 정규방송을 영국본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방송망을 넓힘으로써 영어의 표준발음은 결국 BBC방송에서 하고 있는 영국영어RP발음을 중심으로 해서 방언의 차이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 있어서는 세계적 영어의 표준발음의 기준인 영국영어RP발음과 호주영어의 발음을 상호비교해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고찰 하고자 한다.

3.3 Jones의 기본모음(Cardinal Vowel System)과 영국영어 RP모음의 비교

기본모음 (Cardinal Vowels (CV))이란 어떤 특정 언어의 모음이 아니라, 어떤 주어진 언어의 모음을 기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추상적으로 정하여 모음사각도에 표시한 모음 틀이다<표 1>. 이는 청각적인 (auditory), 조음적인 (articulatory)차원에서 인위적으로 Daniel Jones교수가 고안하였다. 기본모음들 사이의 다른 모음은 다른 기호를 추가로 만들어 사용하게 된다 (Bauer et al. 1980, p94).

1) Eight Primary Cardinal Vowels(여덟 개의 기본모음) 설정

Jones는 인위적으로 지구상에 3600여개의 인간 언어에 대하여 가능한 여덟 개의 기본 모음을 설정하고, 이는 모든 언어에 대해서 모음설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각각의 모음에 대하여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1. [i] 2. [e] 3. [ɛ] 4. [a]

5. [ɑ] 6. [ɔ] 7. [o] 8. [u]

기본모음의 설정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첫째, 혀가 가장 높이 올라가는 앞·뒤 부분으로 모음을 부여하고,

둘째, 혀가 가장 낮게 내려오는 앞·뒤 부분에 모음을 부여하고,

셋째, 그 중간에 각각 2개의 모음을 두고 있다.

인위적 모음 도를 설정했다. 그래서 특정 자연언어의 모음을 측정하기 위한 일종의 척도 역할을 한다.

모음의 분류상 명칭은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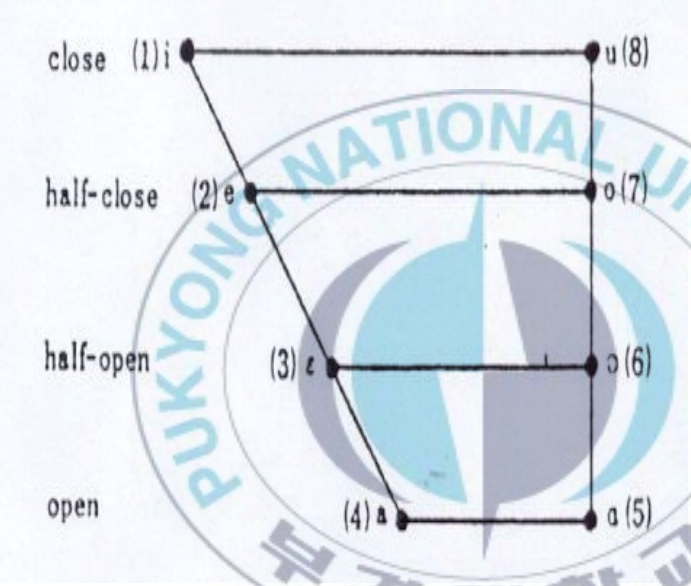
① 폐모음 (close vowel) : / i,u / 을 발음 할 때 혀 높이와 입천장 간격이 좁혀질 때 생산된 모음

② 개모음 (open vowel) : / a, ɑ / 을 발음 할 때 혀 높이와 입천장 간격이 넓어질 때 생산된 모음

③ 반폐모음 (half close vowel) : / e, o / : No.2와 NO.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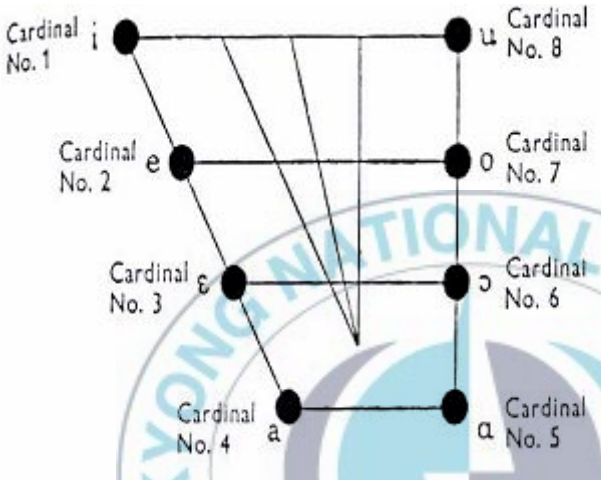
④ 반개모음 (half open vowel) : / ɛ, ɔ / : No.3와 No.6

이 이론에 따르면 <표 1>과 같이 고모음은 폐모음, 저모음은 개모음, 중모음은 반 개 · 폐모음이 된다.



<표 1> D. Jones의 기본모음도(Jones, 1918, 36-37)

또한 Jones는 The Pronunciation of English (D. Jones. 1909, 21)에서 기본 모음도의 혀의 위치와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표 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2> 기본모음의 혀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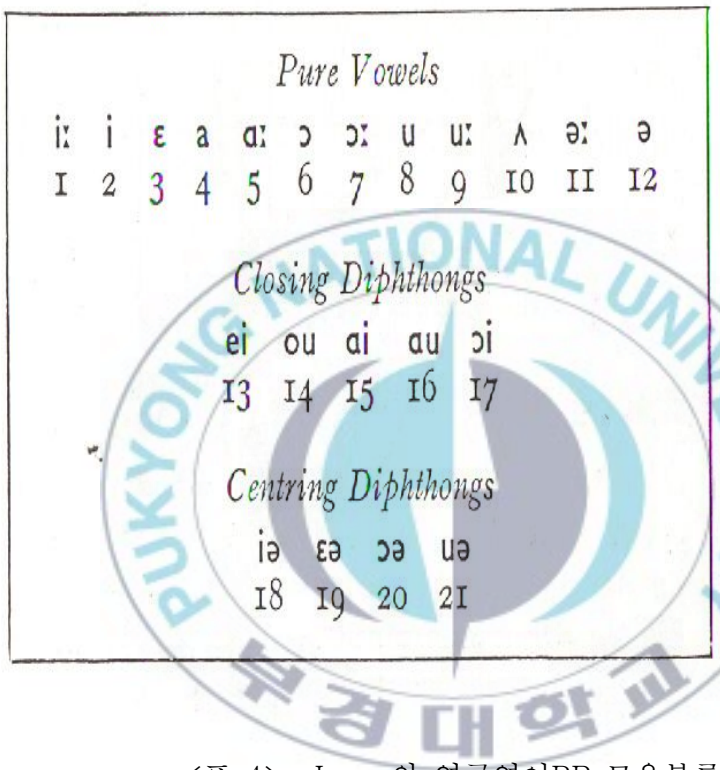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표 3>은 D. Jones' English RP Sounds를 자음과 모음을 조음음성학적인 견해에서 정리하여 도표화 한 것이다.

		Labial		Dental	Alveolar	Post-alveolar	Palato-alveolar	Palatal	Velar	Glottal
		Bi-labial	Labio-dental							
CONSONANTS	Plosive	p b			t d				k g	
	Affricate					tr dr	tʃ dʒ			
	Nasal	m			n				ŋ	
	Lateral				l				(l̩)	
	Fricative		f v	θ ð	s z	r	ʃ ʒ			h
	Semi-vowel	w						j	(w)	
VOWELS								Front Central Back		
	Close	(u:) (u)						i: u: i u		
	Half-close	(o)						e ɜ: o		
	Half-open	(ɔ:)						ɛ ə ɔ:		
	Open	(ɔ)						æ ʌ ɔ a ɑ		

<표 3> 영국영어RP 자음도와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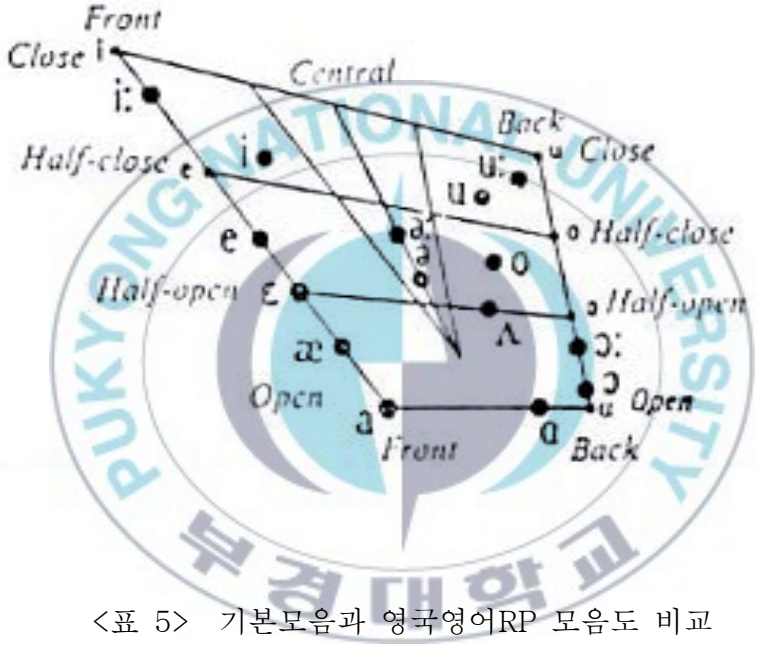
다음의 <표 4>는 D. Jones가 영국영어RP모음을 단순모음으로 분류 한 것을 보면 12개의 단순모음과 9개의 이중모음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 Jones의 영국영어RP 모음분류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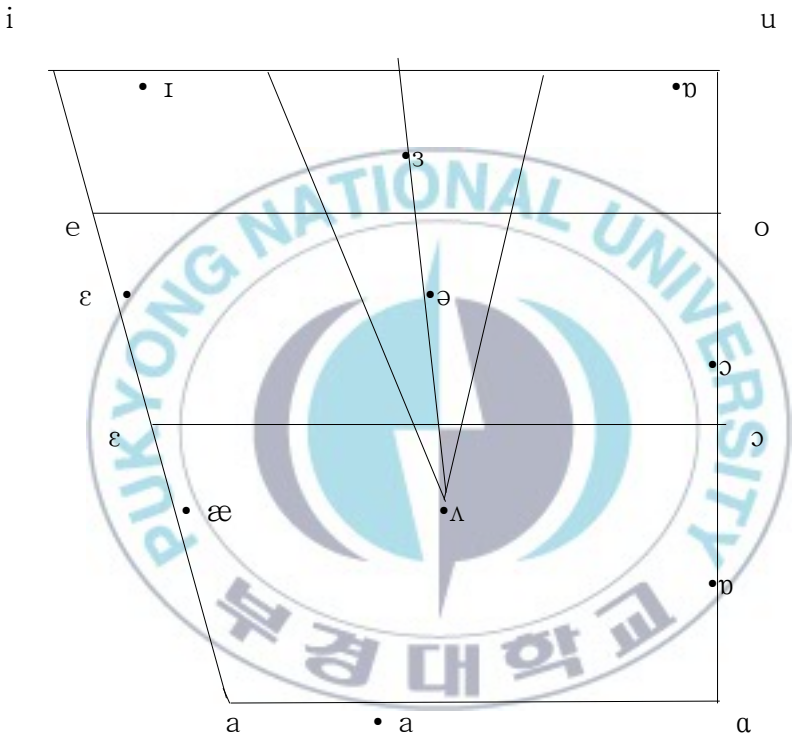
<표 5>는 기본 모음도와 영국영어RP 모음도를 표로 비교한 것이다. 이 도표를 보면, Jones교수는 영국영어RP모음이 기본모음도 보다 혀의 위치가 한 단계 낮게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영국영어RP 모음은 조음 시 기본모음보다 혀의 위치가 약간씩 낮은 위치로 조음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표 5> 기본모음과 영국영어RP 모음도 비교

(큰 점(•)은 영어 모음을 표시한 것이고, 작은 점(·)은 기본 모음도 상의 모음의 혀의 위치를 표현한 것이다.)

3.4 기본모음, 영국영어RP모음과 호주영어모음의 비교



<표 6> 호주영어 단모음과 Cardinal Vowel의 비교도

<표 6>은 Jones의 기본모음과 호주영어의 단모음의 혀의 위치도를 비교한 것이다. (도표 안쪽에 있는 점(•)다음에 있는 모음표시는 호주영어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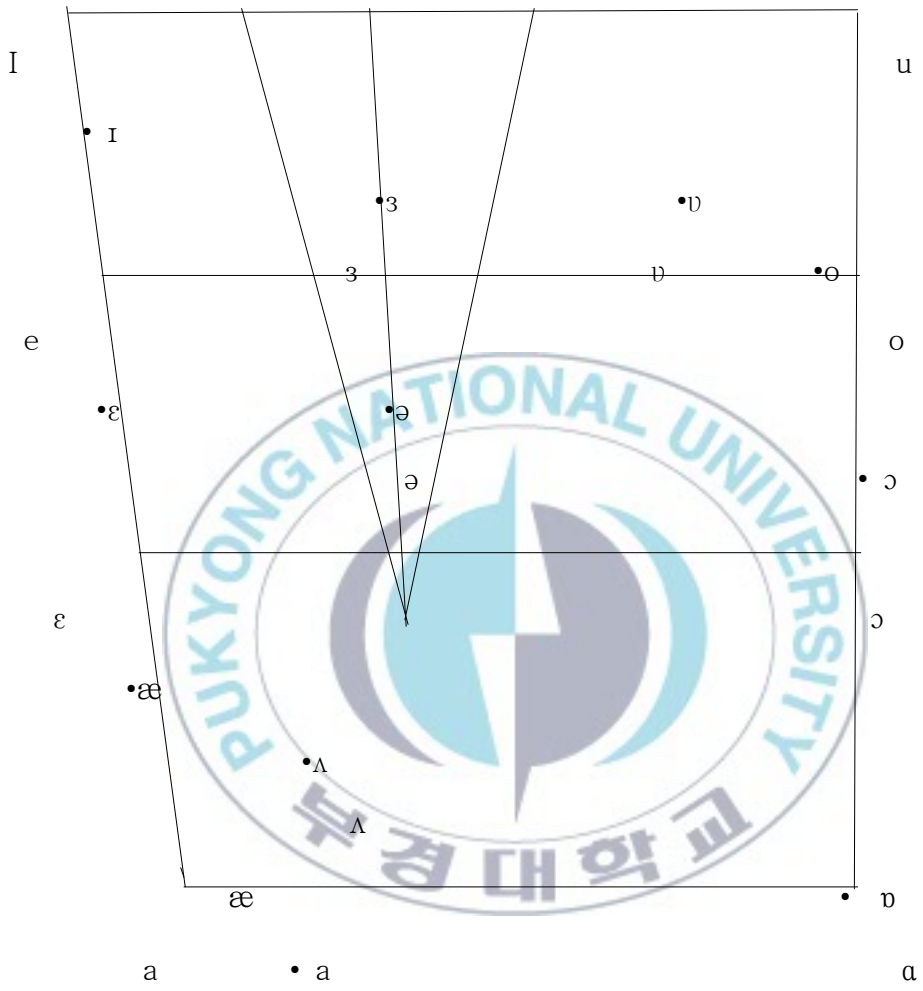
이고, 모음사각도상 도표 바깥쪽 점(•)표시 없이 표시된 모음은 기본모음 표시이다.)

모든 발음의 모음을 기술할 때는 Jones의 기본모음도 상의 것과 개별언어음의 모음을 비교함으로써 그 기준모음의 혀의 가장 높은 위치를 측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19세기 초에 영국영어RP발음을 하던 영국인들이 호주와 뉴질랜드 지방에 정착하면서 그간 150년에서 200년 사이에 그들 자신의 지역발음의 특징을 나타내는 주목할 만한 약음 /ɜ/와/ə/의 상실과 전설단모음 /e/와/ɛ/의 혀의 위치 상승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세(accent)면에서는 특이한 점은 없지만 이중모음 단모음화되는 경향 즉 단모음이 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호주영어 발음의 특징을 모음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호주모음은 영국모음에 비해 길고 느리게 발음되는 경향이 있으며 영국영어RP 발음에 비해 혀의 높이가 입천장에 더 가깝고 전설 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구강을 좁혀서 발음하는 폐쇄성이 있다. 호주 발음이 웅얼거리면서 입을 거의 닫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성향 때문인데 Daniel Jones의 기본모음도표를 공통적인 틀로 하여 영국영어RP의 단모음 분포와 Mitchell & Delbridge(1965)가 제시한 호주영어의 단모음 분포를 비교해 본다.



<표 7> 영국영어RP 단모음과 호주영어 단모음의 혀의 위치도

<표 7>은 영국영어RP 단모음과 호주영어 단모음의 혀의 위치도를 도표화 한 것이다. (모음 앞에 점(•)표시를 한 것이 호주영어 모음의 혀의 위

치를 나타내고, 모음 사각도 상 점(•)표시 없이 표시된 모음은 영국영어 RP 단모음을 나타낸다.)

영국영어RP 모음과 호주영어 모음의 특징을 단모음의 전설, 후설, 중설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호주영어에서 고 전설 모음 [ɪ] 는 <표 6>에 보는 바와 같이 영국영어RP에 비해 혀가 더 높은 상태에서 조음된다. 또한 영국영어RP의 [ɛ]는 [ɛ]와 [e] 사이의 중간정도에 위치하지만 호주영어에서의 [ɛ]는 [e]쪽에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또한 영국영어RP의 [æ]는 [a]와 [ɛ]사이의 중간정도에 있지만 호주영어의 [æ]는 [ɛ]쪽에 더 가까운 위치에서 발음된다. 영국영어RP의 [ɔ]는 기본모음도표의 [ɔ]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 호주영어의 후설모음인 [ɔ]는 영국영어RP의 [ɔ]보다 더 위쪽에 있기 때문에 호주영어의 [ɔ]가 더 폐쇄적이다. [ʌ]와 [a]의 발음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 영국영어RP의 [a]발음은 기본도표의 [a]쪽에 치우친 반면 호주영어의 [a]발음은 기본도표의 [a]와 [ɑ]사이에서[a]쪽에 가깝게 조음된다. 또한 영국영어RP의 [ə] 는 후설모음의 영역에 속하지만 호주영어의[ʌ]는 전설모음의 영역에 속한다는 차이점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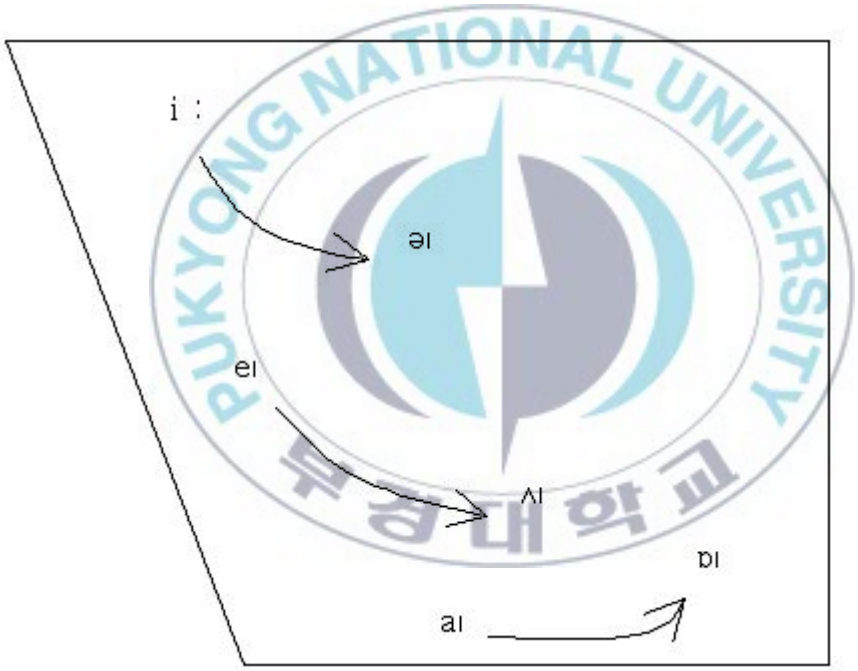
다음으로 중설모음에 대해 살펴보면 호주영어의 [ə]와 [ɜ]는 영국영어RP에 비해 더 폐쇄적이다. 영국영어RP의 [ə]는 기본모음도표의 mid-central의 약간 아래쪽에서 발음되고 호주영어의 [ə]는 mid-central의 위쪽에서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영국영어RP의 [ɜ]는 high-central의 중간 아래쪽에서 발음되는 반면 호주영어의 [ɜ]는 high-central의 중간이나 조금 위쪽에서 발음되는 반면 되는 차이점이 있다. 이처럼 영국영어RP와 호주영어 모음간의 차이는 [a],[ɜ],[ʌ],[ə]의 발음 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또한

호주영어의 [æ],[ɛ],[ɪ] 발음은 영국영어RP에 비해 폐쇄적이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호주인 들은 [æ]를 [ɛ]처럼 발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man은 men으로, hat은 het으로, band는 bend로 들릴 수 있다 (박희문,2000). 이처럼 호주영어의 모음은 영국영어RP모음에 비해 더 전설화되고 폐쇄적이어서 턱을 조금만 벌리기 때문에 호주인 들이 입을 거의 다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식 발음 보다 원순성(roundness)이 약간 떨어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중모음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다.

호주영어에서는 [ɪə],[ɛə],[ɔə] 와 같은 이중모음에서 전이음이 약화되어 두 번째 모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 here [hɪ:], chair[ʧɛ:], four[fɔ:]와 같이 [ɪə,ɛə,ɔə]보다는 [ɪ:, ɛ:, ɔ:]와 같이 장음화를 초래한다. 교양인 호주영어에서 [eɪ],[ou],[aɪ],[au]의 이중모음은 영국영어RP의 발음과 거의 같고 [ɔɪ]는 영국영어RP에서보다 더 폐쇄된 혀 위치를 가지고 있다(구희산, 2002). 일반 호주영어는 [eɪ],[ou],[aɪ],[au]의 변이형들과 [ɪ:], [u:]의 이중모음화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영국영어의 fleece의 [ɪ:], face의 [eɪ], price의 [aɪ]의 모음은 다음과 같이 호주영어에서는 [əɪ], [ʌɪ], [ɒɪ]로 각각 발음하여 중설이중모음으로 발음되는 경향을 보여서 혀의 가운데를 높여 발음 하면서 탁한 모음을 발성한다.

<표 8>은 이런 호주이중모음의 발음과 영국영어RP이중모음의 형성을 표시 한 것이다.



<표 8> fleece, face, price의 이중모음 비교 (영국영어RP → 호주 영어)

호주이중모음의 형성이 영국영어RP의 것과 비교되는 또 하나의 현상은 <표 9>와 같이 이중모음의 전설화 경향이 영국영어RP의 것과 대조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영국영어의 goose의 [u:], goat의 [əʊ], mouth의 [au] 는 호주영어에서는 [əʊ], [ʌʊ],[o]로 발음한다.

<표 9> goose, goat, mouth의 이중모음 비교

(영국영어RP → 호주영어)(김찬훈, 1997)

호주영어의 이중 모음에는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그 중 [eɪ] 발음은 다른 영어방언의 모음들과 가장 구별되는 특징이다. Turner(1972)에 따르면 일반 호주영어에서 [eɪ]가[ʌɪ]로 발음되는 경우가 흔히 관찰되는데 이는 교양인 호주영어에 영향을 끼쳐 상류층에서도 [eɪ]의 [e]를 발음할 때 영국영어RP에서보다 입을 더 벌려서 [ʌɪ]로 발음한다. 따라서 okay를 [okaɪ]로, good day mate를 [gudaɪmaɪt] 로 발음한다. 그 밖의 특징으로는 이중모음을 단모음화 하거나 삼중모음화 하여 발음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ei]의 이중모음을 [ɛ] 으로 단모음화 하여 says [seiz]는 [sɛz], ate[eit]는 [ɛt], gate[geit] 는 [gɛt] 으로 각각 조음한다. 이중모음의 삼중모음화는 [ou] 의 발음에서 나타나는데 grown은 [groun] 이 아닌 [grouən]으로 발음되어 [ouə]가 되고 따라서 단어 sown 역시 [soun] 이 아니라 [souən] 으로 발음되는 것이다(박종원,2001).

3.5 영국영어RP자음과 호주영어 자음의 발음비교

다음으로 호주영어의 자음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Cochrane(1959)에 따르면 호주영어의 자음은 영국영어RP의 자음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호주영어만의 특징적인 요소는 많이 없지만 Trudgill과 Hannah(2002) 그리고 Henry Rogers(2000)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 영국 영어와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호주영어는 non-rhotic 즉 음절 끝이나 자음 앞에서 /r/음을 사용하지

않는다. 호주영어에서 /r/은 연결 적이고 삽입 적이며 영국영어에서보다 더 강하게 반전(retroflex)되어 발음된다.

2) 설측음(lateral)의 /l/은 leave [li:v] 에서처럼 dark ɬ 발음으로 발음되어 탁하고 어두워서 감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only [ouni], all right [ɔrait] 와 같이 발음된다.

3) 호주영어에서 [h]음은 연구개를 낮추고 조음하기 때문에 'hat'과 같은 단어는 [h]음을 생략하고 [æt]로 발음되는 특징이 있다.

4) 모음사이에 위치하고 /t/는 미국 서부지역의 방언들처럼 유성 설탄음(flap) [dɾ]이 된다. 강세가 없는 단어의 음절에서 [t]음을 유성화시켜 city ['sɪdɾ], letter[ledɾər]과같이 발음된다. 이러한 경향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미국영어의 영향을 점점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5) 호주인 들은 영어음소를 조음할 때 영국 남부 지역 사람들처럼 입을 크게 벌리지 않기 때문에 [k] [g] 음은 연구개 쪽이 아니라 입 경구개에서 소리가 난다.

6) 비음(nasalization)은 호주영어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호주인 들은 연구개를 낮추어 발음하기 때문에 폐 속에서 공기가 입과 코를 통해 나오면서 심한 콧소리(twang)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m] [n]앞에서 비음이 되는 [au] 는 호주영어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다. 특히 전형적인 호주 사투리에서 'down'이나 'now'와 같은 단어는 강하게 비음으로 발음되어 전형적인 호주 사투리 비음(twang)을 의미하는 계기가 되었다.

3.6 영국영어RP와 호주영어의 강세와 억양 비교

호주는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미국보다 영국의 강세와 더 비슷한 점이 많다는 사실은 전혀 놀라운 점이 아니다. 그럼에도 호주는 자체적으로 독창적인 강세를 발전시켜왔고 이것은 영국의 그것과는 쉽게 구별된다. 호주영어는 대륙의 광활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동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Perth에서 Sydney까지 그 면적이 3000km가 넘지만 그들의 말투를 실제적으로 구별하기는 어렵다. 발음이나 강세의 지형적인 다양성으로는 시골이 도시보다 다소 사투리가 심하고 느리다는 점인데 이러한 차이점을 제외하면 호주에서의 강세변화는 지리적인 것보다는 사회 다양성에 그 기반을 두고 있고 앞서 설명한 호주사투리어, 일반 호주영어, 교양인 호주영어에 따라 차이가 조금씩 나타난다.

먼저 호주영어의 강세에 대해서 살펴본다. 호주영어는 일반적으로 강세위치가 첫음절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defect['difekt], incline['ɪncline], rebound['ri:baund], replay['ri:pleɪ]와 같은 명사형 단어에서 강세가 모두 앞쪽에 위치해 있다. ‘greengrocer’같은 경우에 영국영어는 첫음절에 강세가 오는 반면 호주영어에서는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온다. 단어 highroad, hillside, hilltop은 영국영어에서는 두개의 음절 모두에 강세가 오는 반면 호주영어에서는 첫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온다. 영어에서는 비 강세 음절이 연속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피하려는 특성 때문에 긴 어휘를 발음할 때 강세의 위치를 바꾸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발화를 더 용이하게 하려고 하거나 비슷한 단어들 때문에 강세가 바뀌는 이유도 있다. 그 예로 laboratory[ləb'ɔrətəri]가 ['l bərətri]보다가 말하기가 더 쉽고 강세음절 다음에 비 강세 음절이 연어 나타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영국영어RP는 첫음절에 강세를 두는 성향이 강하지만 호주영어에서는 어근(root)에 강세를 두는 경향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hospitable[hɑs'pitl], exquisite[iks'kwizit], intricacy[in'trikəsi], 문장 강세(sentence-stress)에서도 영국식과는 차이를 보이는데 어휘강세에서처럼 비 강세 음절들이 연이어 나오는 것을 피하려는 경향은 마찬가지이다. 호주영어에서는 비 강세음절이 길게 연속해서 나타나게 되면 1강세나 2강세로 대체 되는 현상을 보인다. 그래서 영국영어보다 강세음절이 문장 안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영국영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발음 했을 때 "Half a pound of 'butter,'all the way home"과 같은 강세가 나타나지만 호주영어에서는 “Half a 'pound' of 'butter,'all the 'way 'home”에서처럼 pound와 way에도 제 1강세 또는 제 2강세가 나타난다. 그러나 호주영어에서 문장 강세는 영국영어RP보다 정도가 약한 경향이 있으며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강세와 높낮이의 대조가 현저히 감소한다. 호주인 들이 사용하는 대화의 운율은 느리고 매 음절마다 동일한 무게의 강세를 주면서 일반적으로 소리를 늘어뜨려 발음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조로운 어조는 호주영어를 매우 지루하게 느끼게 하는 반면 영국영어는 활기차고 정확하다는 인상을 준다(박희문 ,2001).

다음으로 호주영어의 억양에 대해 살펴본다. Dinning(1939)은 호주영어는 리듬이 없고 특징적인 높낮이가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호주인 들은 마치 질문을 하거나, 상대방의 찬성이나 이해를 구하는 것처럼 말끝을 올리는 습관이 있다. 예를 들어 “And it was raining, really hard.”에서 ‘really hard’에 물음표가 붙은 것처럼 끝을 올리는데 이것은 “you know what I mean?”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Mitchell과 Delbridge(1965)는 호주영어를 ‘High Rising Tone’(HRT)또는 ‘Australian Questioning Intonation’(AQI)로 특정 지었다.

즉 상호대화를 계속 진행시키겠다는 장치이자 화자가 점잖다는 뜻을 나타내는 신호로도 나타내는 등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HRT를 제외하고 영국식 발음과의 억양패턴은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호주영어는 영국영어에 비해 단조롭고 무미건조하며 매우 느리게 들린다고 하다. 왜냐하면 호주 식 억양은 영국영어에 비해 진폭이 좁은 편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호주영어는 훨씬 더 좁은 영역 안에서 억양을 유지하기 때문에 높고 낮음의 폭이 더 적은 적이다. 특정문장이나 태도, 분위기 등 에서의 높낮이 패턴도 영국영어와는 다르다. 이런 현상 때문에 호주 영어가 또렷하지 못하고 밋밋하며 특색이 없는 인상을 주게 되는 것인데 작가 Sharp(2005)는 호주 인들은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즐거운 사건도 낮은 톤으로 말해서 평범한 일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우스갯소리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이 발화자들에게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정도는 아니다.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일반 호주영어의 발음과 영국영어RP와 비교되는 특징을 고찰해 보았다. 영국영어RP발음과 호주영어를 비교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국영어RP모음과 호주영어 단모음에 있어서는 호주영어가 영국영어RP 모음의 혀의 위치 보다 높게 나타나서 영국영어RP 단모음보다는 호주단모음이 폐모음화 되어 발음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또 이중모음에 있어서는 영국영어RP의 긴장모음(u:)이 중설 모음화 된 이중모음 발음과 전설 모음화 된 이중모음의 발음으로 혀의 쏠림이 중설화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자음에 있어서는 영국영어RP의 자음 발음과는 달리 이중음의 자음발음경향 즉 /t/와/d/ 음이 설탄음화 되는 경향이 있음이 조사되었다.

강세와 억양 면에 있어서도 영국영어RP와는 달리 음절마다 약 강세를 두어서 또박또박하게 발음함으로써 단조로운 억양 구조를 보이는 것은 역시 미국영어의 억양구조와 비슷한 경향으로 조사되었다.

참고문헌

구희산. (2002). '영국, 미국, 호주 영어 모음의 특징,' 『한국교육문제 연구소 논문집』, 17,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 연구소

김용성. (2001). 신영어발달사, 서울: 한국문화사

김지향. (2004). "호주 영어의 모음 발음 고찰,"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김찬훈. (1997). "영국, 미국, 호주 영어의 모음 비교 분석,"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김형식. (1999). 호주사회와 문화, 서울: 지구문화사

박종원. (2001). "현대 호주영어 특징 연구," 『인문논총』, 9, 경기대학교 인문예술 총 괄 학부 인문과학 연구소.

박종원. (2002). "현대 호주속어영어 야상과 형태학적 특징." 『인문 집』,46, 경기대학교.

박희문. (2000). "호주영어의 사회 언어적 기원과 특성," 『인문논총』,16, 배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박희문. (2001). "호주영어의 음성분석연구,"『인문논총』, 17, 배재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배재덕. (2008) 영어 음성학과 발음교육, 부산; 논문의 집.

배재덕. (2011) A Short History of the English Language, 영어논문

송경숙. (2005). “호주 영어 및 호주 원주민 영어의 특징,” 『영어교육연구』, 17, 팬 코리아영어교육학회.

정상균. (1998). “호주영어의 방언 : 시드니 도심방언을 중심으로,” 『어학교육』, 28, 전남대학교 어학연구소

Kute, B.& Jean, M. (1995). English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Oxford: University Press.

Blair, D. & Collins, P. (2001). English in Australia,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Rogers, H. (2000). The Sound of Language: An Introduction to Phonetices, Longman.

Sharp, I. (2005). Australia, Seoul: Whistler

Daniel, J. (1918). An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Tokyo: Maruzen company. LTD.

Daniel, J. (1924). An English Pronouncing Dictionary, Tokyo: Maruzen company. LTD.

Kenyon, J. and Knott, T. (1953) A Pronouncing Dictionary of American English, C&C Merriam Company.

Wells, J . C (1982). Accents of English, Cambridge University

Mitchell, A. G. & Delbridge, A (1965). The Prounciation of English in Australia

Pennycook, A. (1995). English in the world/the world in Englis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udson, R.(1994). Language Change, London: Routledge.

Dawson, S. (1999). Aussie Slang, Penguin: Australia

Trudgill, P. (1986). Dialects in Contact, Oxford: Basil Blackwell.

Trudgill, P. & Hannah, J. (2002). International English: A guide to the varieties of standard Englis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